

“새로운 전술·독한 훈련 중무장...K리그1 새 무대 도전”

태국 전후 광주FC 이정호 감독

광주FC가 더 빠르고, 더 강한 무대로 돌아간다. 초보 감독에서 우승 감독이 된 이정호 감독의 머릿속이 더 복잡하게 돌아오고 있다. 이 감독은 '새로운 전술'과 '독한 훈련'으로 K리그1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태국 치앙라이에서 동계훈련 중인 이 감독은 “선수들도 힘들지만 나도 힘들다(웃음). 지난해에는 무시당하고 의심받는 느낌이었지만 기대를 받고 가는 느낌이다. 기대에 부응하려면 준비 잘해야 한다”며 “처음 접하는 전술 훈련을 하고 있다. 전술적인 부분 마스터가 되면 어떤 팀하고 붙어도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다음은 이정호 감독과의 일문일답.

—안영규 선수가 “몸만 힘들다가 머리로 힘든 시기가 왔다”고 하던데

▲공 없이 훈련할 때는 몸만 만들면 됐는데 이제 전술훈련도 겸해서 하고 있다. 몸과 머리를 다 써야 하니까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다. 선수들도 힘들지만 나도 힘들다(웃음). 상대가 어떻게 나올지 예상하고 그런 훈련을 계속하니까 머리를 많이 써야 해서 나도 힘들다.

—대진이 나오면서 더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생각할 것 같은데

▲상대가 백포로 나올지 백스리로 나올지 그런 것을 가장하고 전술 훈련을 하고 있다. 똑같은 전술 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변하니까 서로 이야기 많이 하고, 호흡도 맞춰야 하니까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다. 솔직히 나는 그걸 즐기기도 있다. 문제가 힘들어하니까 이야기 많이 하고 정답 맞추려고 노력한

무시 대신 기대 받고 가는 느낌 어떤 팀하고 붙어도 자신 있어 노장 안영규 축구 늘어 희망으로 만들어 보고 싶은 선수는 정지훈 선수들 계속 압박해 발전시킬 것

다. 지금 하는 전술이 많이 힘들다. 상대가 압박 금방 온다. 그런 압박을 풀 수 있는 훈련을 하고 있다. 작년에는 3자 패스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이번에는 3자로 볼을 받을 수 있는 위치를 이야기한다.

—항상 선수들을 생각하게 만드는데

▲선수들이 힘들다고 하는데 (안)영규가 많이 늘었다. 영규가 틀을 짰다고 해야 하나? 내 생각을 바꿔줬다. 은퇴시기가 다가오는 선수인데도 축구가 늘었다. 나이를 먹더라도 새로운 감독하고 새로운 축구를 하면서 생각하고 변화를 가져가면 바뀌는구나. 그걸 보면서 희망을 얻는다.

—안영규 MVP 수상에 대한 마음이 남달랐을 것 같은데

▲다른 선수들은 운동할 날들이 많다. 영규는 은퇴시기가 다가와서 고향 팀에 다시 와서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인데 더 좋은 활약을 해줬다. 또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고 그래서 더 무릎하고 벅했다. 내가 상을 탄 것보다 더 좋았다.

—올해도 주장 역할을 맡겼는데

▲작년에도 잘해줬고 올해도 후배들과 잘 지내고 동료들과 잘 지내고, 맞는 게 있으면 칭찬도 하고 틀린 게 있으면 꾸짖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확



이정호 감독

실해서 좋다. 팀과 후배들한테 맞추려고 하는 부분도 좋았다.

—산드로에게 부주장을 맡겼는데

▲어린 선수들을 잘 챙긴다. 또 외국인 선수가 늘어서 산드로에게 역할을 맡겼다. 아론도 작년에 있었는데 언어가 다른 데 둘이 대화하는 것 보면 통하는 게 신기하다. 아론도 새로운 선수들에게 도움을 많이 준다.

—지난해 동계훈련 당시 ‘만들어 보고 싶은’ 선수로 정호연을 언급했었는데

▲내 예상이 맞았다.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뛰어났다. 벌써 올해가 기대된다. 휴가 가기 전 선수와 다르다. 지금 훈련하는데 또 성장했다. 전술적 이해도가 훨씬 더 좋아진 것 같다. 순둥순둥하게 생겼는데 보통 아닌 것 같다. 나도 야망이 큰데 나보다 꿈과 야망이 큰 것 같다(웃음).

—만들어 보고 싶은 선수는

▲(신인) 정지훈도 벌써 싸수가 보이기 시작했다. 기대된다. 호연이만큼 잘 뛰고 스피드가 있고 민첩하고 똑똑하다. 엄지성을 뛰어넘어야 한다. 큰 벽이 하나 있다. 지성이든 더 성장을 해야 하는데 욕심을 낼 때와 안 낼 때 구분을 잘 못 하는 것 같다. 쉽게 이야기하면 패스할 때, 드리블로 과감하게 끌고 들어가야 할 때하고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

—광주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커졌는데

▲그렇다. 많이 커진 것 같다. 무시는 안 당하니 기분은 좋다. 작년에 시작할 때는 많이 무시당한 느낌이었지만 지금은 그래도 긴장을, 준비를 하지 않을까. 기대에 부응하려면 좀 더 준비 잘해야 할 것이다. (첫 상대 수원삼성) 바짝 긴장하고 있을 것이다. 엄청나게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막 올라왔고 작년에 김포하고 신생팀하고 개막전을 했

었는데, 수원도 우리에게 대해서 그렇게 분석 많이 하고 준비를 잘 하지 않을까.

—제주전도 기대 되는데

▲나는 솔직히 기대는 안 한다. 남기일 감독님과 나와 사이에 대해 오해가 있어서 그런데 38경기 중에 한 경기라고 생각한다.

—그래도 미디어가 주목하고, 선수들의 의지가 남다른 경기가 될 것 같은데

▲격정적이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데 벌써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선수도 있는 것 같다. 상상을 했다. 우리가 승리하면서 그제 빨리 왔다. 잘 준비해서 잘 해줘야 한다. 다행히 홈경기가 먼저다.

—작년 우승 동력이 수비였는데

▲수비였나? 공격 아닌가? (웃음). 그렇다. 우리가 32골 먹었다. 68골 넣고. 또 좋은 부분은 골대비 어시스트가 많았다. 잘 만들어서 골을 넣었다는 것이다. 수비는 상황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이야기해줘야 할 것 같다. 역습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

—예고할 수 있는 변화는

▲올해는 작년만큼 로테이션은 하지 않을 것 같다. K리그1은 수준 높은 선수가 많아서 실수가 곧 직결된다. 그렇다고 해도 모험적으로 용기 있게 도전적으로 할 것이다. 실수에서 배우고, 용기 있게 도전적으로 하라고 내가 다 책임지겠다고 했다.

—남은 2차 동계훈련 어떻게 소화할 것인지

▲지금 하는 축구, 전술적인 부분 마스터가 되면 어떤 팀하고 붙어도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다. 이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선수들을 계속 압박하는 것이다. 수정 수정하고 개선하고 또 개선하고 발전하고 그런 부분을 계속 선수들과고 만들어 가겠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도시공사 핸드볼 거침없다...5경기 연속 무패 행진

강경민 12골·서아루 7골 맹활약 인천시청에 33-23으로 승리



광주도시공사 강경민이 19일 부산 기장체육관에서 열린 2022-2023 SK핸드볼 코리아리그 인천시청전에서 수비수의 강한 제지를 뚫고 슛하고 있다. <대한핸드볼협회 제공>

광주도시공사가 시즌 개막 후 5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었다.

광주도시공사는 19일 부산 기장체육관에서 열린 2022-2023 SK핸드볼 코리아리그 여자부 1라운드 인천시청전에서 33-23(17-15, 16-8)으로 승리했다.

광주도시공사는 4승1무를 기록, 무패행진을 5로 늘렸다.

주전들의 고른 활약이 승리의 원동력이 됐다. 강경민(12골, 9어시스트), 서아루(7골), 원선필(5골), 김지현(3골, 5어시스트)이 고루 득점했다. 강경민은 54골을 터뜨려 득점 랭킹 1위를 달렸다.

주포들은 인천시청 외곽에서 7m 슛 9개, 6m 슛 6개, 9m 슛 5개 등을 꽂아넣으며 인천시청의 수비를 무력화했다.

전반전 17-15, 2점차 리드로 마친 광주도시공사는 후반 11분께 24-16으로 8점차까지 간격을 벌였다.

후반 21분께 27-23으로 4점차까지 추격을 허용

한 광주도시공사는 강경민의 연속 2골과 서아루의 골을 묶어 30-23으로 다시 스코어를 7점차까지 벌리며 인천의 추격을 따돌렸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학생 운동선수 출석 인정 일수 20~50일로 확대

운동·학업 병행 쉽게 방안 마련

운동하는 학생 선수들의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 (이하 출석인정일수)가 올해부터 대폭 늘어난다.

학생 선수가 대회와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학교에 결석할 때 이를 출석으로 인정하는 출석인정일수가 작년보다 늘어나면 선수들은 한결 원활하게 운동과 학업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스포츠혁신위원회' (이하 스포츠혁신위) 권고안을 재검토한 결과, 2023년부터 출석인정일수를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로 확대하고 학생 선수 맞춤형 학습지원 방안을 마련해 학생 선수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출석인정일수는 지난해 초등학교 5일, 중학교 12일, 고등학교 25일에서 올해 15일, 23일, 25일

씩 더 많아진다.

정부의 이번 방침은 학생 운동 선수의 학습권 보장 쪽으로 기울었던 기존 정책을 수정해 학습권과 운동권의 조화를 꾀한 것으로 요약된다.

스포츠혁신위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체육 분야(성)폭력 등 인권 침해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출범한 민간합동 위원회다.

지난 2019년 2월부터 1년간 체계적 구조개혁을 위해 ▲스포츠 인권 보호 ▲선수육성 시스템 개선 ▲스포츠 공정문화 정착 등을 내용으로 모두 7차에 걸쳐 52개 과제를 권고했다. /연합뉴스

광주시장애인양공협회 '우수단체상'

대한장애인양공협회 시상...광주시청 김옥금 '우수선수상'

광주시장애인양공협회가 대한장애인양공협회 우수단체상을 수상했다.

대한장애인양공협회는 지난 17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2022년 장애인양공을 빛낸 단체, 지도자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광주시청 장애인양공팀이 주축이 된 광주시에 장애인양공협회는 지난해 열린 4차례의 전국대회에서 모두 정상에 오르며 4회 연속 종합우승이라는 독보적인 성적을 거둔 공



지난 17일 열린 대한장애인양공협회 정기이사회에서 안형승(오른쪽) 광주시청 장애인양공팀 감독이 이경렬 대한장애인양공협회장으로부터 지도상을 받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광주시청 장애인양공팀 제공>

로를 인정받아 전국 17개 시·도 장애인양공협회를 대표해 우수단체에 선정됐다.

광주시 장애인양공팀은 지난해 열린 제42회 전국장애인체전에서 한국신기록 1개와 대회신기록 1개를 작성하며 금메달 6개, 은메달 5개, 동메달 4개 등 총 13개의 메달을 획득, 종목 종합 2위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 성적을 달성했다.

광주시청 김옥금은 우수선수상을 수상했다.

장애인양공 국가대표인 김옥금은 불굴의 노장 투혼으로 전국장애인체전 개인전 금메달을 비롯해 전국종합대회 5관왕, 경기도지사배 5

관왕, 제1회 순천만배대회에서 2개의 한국신기록을 다시 썼다.

안형승 감독은 지도상을 받았다.

안 감독은 "선수들과 소통하며 과학적인 맞춤형 훈련을 집적, 선수 개개인의 잠재력을 끌어올린 것이 역대 최고 성적의 숨은 비결"이라며 "2022 도쿄패럴림픽 국가대표 김옥금과 김란숙, 정진영 이 앞으로 남은 국가대표 최종선발전을 잘 마무리해 오는 10월 항저우에서 열리는 아시안패럴게임에서 '금빛 시위'로 광주 장애인양공을 빛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1982 - 2022

국제보청기 40주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국제보청기

-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